

# 꽃들의 이야기를 통한 사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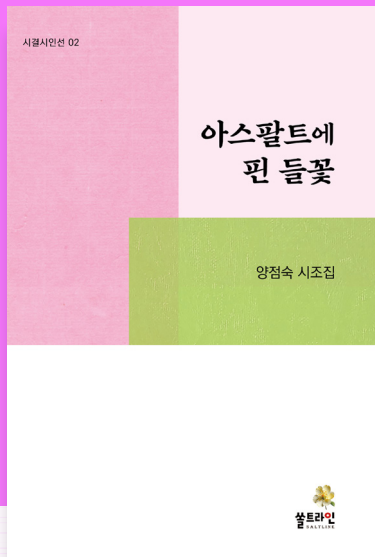
시결시인선 02

## 아스팔트에 핀 들꽃

양점숙 시조집

시결

ISBN: 979-11-92139-97-5 03810/ 13,000원



"삶의 무게 하얗게 매단 계절을 달래가며/ 욕망의 눈높이를 침묵과 맞춰 가는/ 사는 법, 아는 까닭에 그 봄날은 해맑다"(「기차길 냉이꽃」 전문)

"풀어버린 길 끝에 / 앉은뱅이 들꽃 하나// 눈물일 듯 아롱아롱/ 화염의 눈빛// 못한 말 묻어둔 입술/ 열릴 듯 말 듯"(「아스팔트에 핀 들꽃」 전문)

꽃이 말하지 않아도 꽃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 꽃처럼 아름답게 침묵하며 베푸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.

나이를 먹어가면서 꽃이 더 좋습니다. 꽃을 보면 왠지 꽃 같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. 귀엽고 초출하지만, 정갈한 우리 꽃과 숲이 좋습니다.

— 양점숙, 「시인의 말」 중에서